

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

채진영(전북대 조교수) · 정혜정(전북대 교수)

출산 후 부모-영아의 애착을 예측할 수 있는 태아애착에 관한 국내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며, 특히 아버지-태아 애착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.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임산부와 그 배우자의 자기분화, 심리적 적응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출산 후 영아와의 애착 관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.

J 지역의 임신 28주 이후의 16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Condon(1993)이 어머니용, 아버지용으로 개발한 태아애착 도구를, 정혜정과 조은경(2007)이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를, Derogatis(2001)이 제작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단축형(Brief Symptoms Inventory-18, BSI-18)으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였다.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.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자기분화, 심리적 적응, 태아애착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순회귀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기분화 수준은 정서적 단절에 관해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을 뿐, 모든 하위요인에서 임산부보다는 배우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심리적 증상의 경우, 모든 하위영역에서 배우자보다 임산부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. 태아애착의 경우 태아에게 보이는 애정의 정도는 임산부보다 배우자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. 태아에 집중하는 정도에서는 임산부가 배우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.

임신 후반기 부부의 자기분화 및 심리적 증상의 하위요인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, 임산부의 경우, 자기분화는 16%($F= 14.47, p< .001$), 심리적 적응은 17%($F= 29.82, p< .001$)의 설명력을 보였다. 배우자의 경우, 자기분화는 15%($F= 13.06, p< .001$), 심리적 적응은 25%($F= 45.73, p< .001$)의 설명력을 보였다.

배우자의 자기분화 수준은 임산부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, 이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감정적 태도보다는 이성적 태도를 중시하고 요구하였던 우리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. 임산부의 심리적 적응이 배우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및 정신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. 임산부와 배우자의 경우 모두 정서적 단절은 태아애착의 애정 정도와 집중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. 즉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고립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정도가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심리적 적응을 우울 역시 임산부와 배우자의 태아애착의 애정 정도와 집중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임신기의 우울감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출산 후 영아와의 애착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.